

중편성장소설집

아직은 초순이야

최동일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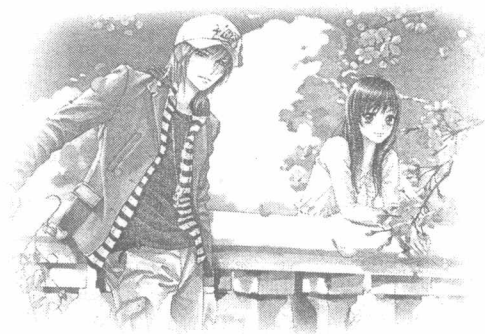


연변인민출판사

중편성장소설집

아직은 초승이야

최동일 저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인덕

책임교정: 신분희

기술설계: 정선숙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现在是初旬: 朝鲜文 / 崔东日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5

ISBN 978-7-5449-0591-6

I. 现… II. 崔… III. 儿童文学-中篇小说-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87.45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9) 第068115号

现在是初旬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8.5 字数: 15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591-6 (民文)

版次: 2009年5月第1版 2009年5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18.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책머리에

저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작은애는 올해 열살, 아직까지는 보고싶은 그림영화를 마음대로 보면 좋아하고 먹고싶은 새우깡을 마음대로 먹으면 좋아하고 하고싶지 않은 숙제를 빼먹어도 욕을 먹지 않으면 만족해하는 때문지 아니한 순진한 개구쟁이입니다.

하지만 올해 열아홉살에 나는 큰애는 아닙니다.

남들이 사춘기를 앓느라 힘들어하는 열대여섯살 때까지만 해도 한점 흐트러짐이 없이 학교생활을 착실하게 해서 우리 부부는 “저 애에게는 사춘기가 없는 모양”이라고 통담을 하며 시름을 놓았더랬습니다. 헌데



지난해 중점고중에 붙은 다음부터 차츰 신상에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초중때까지만 해도 부모들이 머리를 감았냐고 물어 야 겨우 뜨거운 물을 찾던 애가 요즘은 날마다 머리를 감고야 학교에 가고 남들이 간다면 우스워하던 PC방에도 몰래 다니는 눈치입니다. 전에는 교과서공부밖에 모르던 애가 요즘은 부모들 몰래 서점에 다니며 공포나 려 정에 관한 자극적인 책을 사다가 밤도와 읽군 합니다.

다른 애들보다는 좀 늦게 온 사춘기지만 필경 내 아들도 사춘기를 앓는것이였습니다.

그래도 로골적으로 문제를 만들지 않고 반항적으로 부모들과 엇서는 일이 없어서 한시름은 놓이지만 날로 변해가는 아이의 신상변화를 읽으며 과연 우리 아들은 별로 없이 사춘기를 넘길수 있을가가 무척 근심스럽습니다.

직업적인 민감성이라 할가, 집착에 가까우리만치 묵묵히 아들의 모든것을 살폈고 진정 오늘의 소년소녀들은 어떻게 사춘기를 넘길가를 생각해보았습니다. 하여 인터넷에 올라 사춘기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고 여러가지 아이디어로 소년소녀들과 채팅도 했으며 인터넷에 싸이를 만들어놓고 아들 친구들과 1촌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아동문학작가의 작은 공간”이라는 부제를 달고 “소년소녀들”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하여 사춘기



를 겪는 소년소녀들과 대화도 시도했습니다. 그러한 공간을 통하여 저는 오늘을 살고있는 소년소녀들의 희로애락을 어느 정도 가늠해볼수 있었습니다.

따져보면 우리는 소년소녀들을 교정안에 있는 부류와 교정밖에 있는 부류로 나눌수 있습니다.

하다면 교정안에 있는 친구들이 행복할가요? 아니면 교정밖에 있는 친구들이 행복할가요?

어느 정도 오늘의 소년소녀들을 접촉해본 사람이라면 그 생각 자체가 천진하다고 느껴질것입니다. 교정안에 있는 친구들은 응시교육의 멍에에 눌리워 성적순으로부터 오는 압력에 숨도 바로 쉴수 없어하고 교정밖에 있는 친구들은 암담한 자기의 미래로부터 오는 불안때문에 방황을 하고있습니다.

사춘기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힘들어할 나이에 우리 조선족소년소녀들은 또 새로운 민족대이동으로부터 오는 부모들과의 리별, 부모들의 불화로부터 오는 가정의 파탄 등 원인으로 하여 이중, 삼중의 성장통을 겪고있습니다.

“운무의 저쪽”에서 성적순때문에 고민하는 봉이의 형상, “아직은 초순이야”에서 자기만의 개성적인 헤어스타일을 고집하려다가 불량아로 점찍혀 방황하는 웅진이의 형상 그리고 “노란것”에서 알콜중독이 된 아버지



와의 갈등때문에 힘들어하는 령이의 형상 등은 정말 누구라도 머리를 돌리면 볼수 있는 이웃집 소년소녀의 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거나 보고서도 그냥 스쳐버린 형상들이 많을것입니다.

정말 “아이들을 구하라!”고 호소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조선족청소년들을 위한 아동문학작가라고 자부하는 저로서는 방황하고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뭔가를 해야 할 의무감 같은것을 느꼈습니다. 큰일은 할수 없지만 오늘날 청소년들의 진실한 형상을 세상앞에 보여주고 대중들로부터 그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불러낼수 있다면 그 이상 더 바랄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나이 올해 마흔다섯, 소년소녀들과 몇 세대를 사이 두고있지만 아직도 마음만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들과 무릎을 맞대고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사춘기라는 인생의 보리고개를 넘는 소년소녀들의 지팽이로 되고싶은 마음입니다.

최동일

2009년 5월 4일



차 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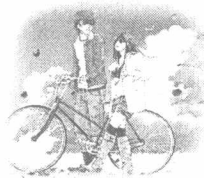
빨간것 1

기차는 숨막히는 어둠을 삼키며 기승스럽게 질주하고있다...



운무의 저쪽 49

봄비는 두팔로 무릎을 꼭 감싸쥐고 천군같이 무거워나는 머리를 아래로 툭 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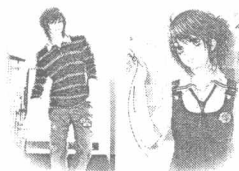


아직은 초순이야 103

거울속에서 둥글둥글한 가까머리가 내려보고있었다. 응진이는 순간 자기의 머리통이 수박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 아직은 호수미야



선녀를 찾아주세요 151

컴퓨터앞에 앉아서 질근질근 껌을 씹는 저어런 눈두렁의 수금원녀자
에게 돈을 넘겨주면서도 흥수는 가슴이 후둑후둑 뛰는것을 어쩔수 없었
다...



노란것 211

렝미는 “득—” 하고 성냥을 그었다. 하지만 성냥개비에 누기가 들어
서인지 아니면 소미 떨어 성냥개비를 제대로 부시에 치지를 못해서인지 기
대하던 불꽃은 일지 않았다.

별간꽃



응이는 천근같이 무거워지는 두눈을 스프르 감았다. 머리속 한구석으로부터 갑자기 천길낙으로 떨어져들어가는 듯한 막연함이 덮쳐들면서 말 못할 피곤이 몰려들었다. 10년전 어머니를 싣고 가던 비행기 옆구리에서 보았던 빨간 타원형포스터가 클로즈업되어 눈앞에 나타났다.

응이는 그 빨간색이 이 세상 어딘가에서 “뽕!” 하고 터져버릴것만 같은 공포를 느끼며 천천히 곱나랏에 빠져들었다...



빨간것

기차는 숨막히는 어둠을 삼키며 기승스럽게 질주하고있다. 분명 갈길이 정해져있는 기차여서 자기가 목적 한바를 향해 달리고있을것이지만 그속에 몸을 담근 응이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를 바라고 달리고 있는지가 묘연하기만 하다.

(아버지에게 진정한 아버지를 찾아드리자.)

서정시의 한 단락 같은 아이디어 하나를 가슴에 담아두고 가방 하나를 어깨에 달랑 걸친채 무작정 떠난 길이여서 응이로서는 더욱 막연한지도 몰랐다.

(선택을 잘한거야, 나의 이 선택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할수만 있다면 나도 행복한거야.)



응이는 애써 서글퍼지려는 자신을 달랬다. 하지만 그게 달랜다고 해서 달래지는것이 아닌것 같았다...

“헉헉...”

그때 아빠는 거칠게 숨을 토했고있었다.

“헉헉...”

숨소리가 거칠어갈수록 빨간것은 세상 무서운줄을 모르고 크게크게 부풀어졌다. 한뼘도 안되던 그 빨간것이 아빠의 입김을 받아먹고 한순간에 배똥똥이로 되어가는것을 신비한듯 바라보면서 응이는 짹짹 손뼉을 치고 토끼뿔을 하면서 가무스름한 얼굴에 맑은 웃음발을 피워올렸다.

“커진다, 커져. 하늘처럼 커진다. 잘한다, 울 아빠. 하늘처럼 잘한다.”

호들갑에 가까운 응이의 재롱이 아빠의 신경을 건드렸던지 아빠는 연신 황소숨을 내뿜으며 응이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아빠의 얼굴은 그 빨간것처럼 빨갛게 부풀어올랐고 눈알은 당금 튀어나올듯 충혈되어갔다.

“아빠!”

응이는 갑자기 새된 소리를 질렀다. 당금 무슨 일이 벌어지리라는 예감이 머리를 쳤던것이다. 그 소리에 아빠는 흠칫하면서 두눈을 더 크게 치뜨며 모두숨을 내



땀었다.

“팡!”

소리와 함께 빨간것은 산산조각이 나며 사방으로 뿌리워져나갔다. 응이는 파편처럼 흩어지는 빨간 조박을 불안한 눈길로 바라보다가 받쳐주던 하늘이 와그르르 무너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며 단말마적으로 “아빠-” 하고 실망을 터쳐올렸다.

그 서슬에 응이는 번쩍 눈을 떴다.

카텐을 뚫고 뿌우연 조각달이 심드렁하니 얼굴을 들이밀고있었다. (꿈이구나.) 하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지났다. 응이는 후- 하고 한숨을 내쉬며 몸시도 불편하다고 생각했다. 몸은 왼쪽으로 누워져있었는데 왼쪽 겨드랑이에 끼워진 오른손이 신통하게도 심장을 누르고있었다. 몸에 깔린 왼쪽팔이 저렸다. 응이는 몸을 추스려서 천정을 쳐다보게 한 다음 오른손으로 저려나는 왼팔을 잠깐 주무르다가 몸 그대로를 큰대자로 만들어버렸다. 늦가을의 누런 잔디밭에 누워있는 듯한 환영이 머리속을 치고 들었다. 구름 한점 없이 푸른 하늘이 참 높다고 생각되었다. 높은 하늘에서 빨간것이 바람에 날려오고있었다. 파아란 하늘에서 한점의 붉은 점은 웬지 그렇게 처량하게 느껴졌다. 응이는 잠깐 두눈을 지그시 감았다.

파아란 하늘의 빨간 점 하나.



기억의 저편에서 뭔가가 스멀스멀 기여나오고있었다.

응이가 여덟살 나던 해였다. 초롱초롱한 두눈에 눈물
마를 새 없던 그해 가을 내내 기별도 없이 꿈에 나타나서
응이의 새우잠을 설치놓던 빨간 점이였다. 꿈을 꾸고 깨
어나면 그렇게 외롭고 무서울수가 없었다. 응이는 어미
닭의 품을 파고드는 햇병아리마냥 아빠의 몸에 자신을
밀착시키곤 했다. 벌써 길들여졌을법도 한 냄새지만 여
전히 길들여지기 힘든 매캐한 톱밥냄새가 응이의 코를
자극했다. 하지만 그 냄새도 꿈을 꾸고난후의 외로움이
나 무서움하고는 비길바가 못되였다. 악착스럽게 아빠의
겨드랑이에 머리를 틀어박을라 치면 날 잡아잡수 하고
드릉드릉 코를 골아대던 아빠도 어느새 잠을 설치고 꺼
슬꺼슬한 손바닥으로 응이의 배를 천천히 만져주면서 잠
기 어린 목소리로 “오줌이 마려워?” 하고 물으셨다.

“아니.”

“그럼 자야지. 뭘 또 학교에 가야 하니까.”

말소리가 떨어지기 바쁘게 아빠는 또 드릉드릉 코
를 골기 시작했다. 응이는 그러는 아빠가 참 밍다고 생
각되였다.

(난 무서운데. 꼭 껴안아줄거지. 엄마라면 나를 꼭
껴안고 머리를 쓸어주면서 “자장자장- 내 아들이야.” 하



고 자장가를 불러줄텐데.)

그런 생각이 들라치면 또 엄마가 떠나가던 날 공항의 하늘에서 보았던 그 장면이 클로즈업되어 눈앞에 펼쳐지곤 했다.

엄마가 한국으로 떠나던 그날도 하늘이 파아란 늦가을의 어느날이었다. 공항 휴게실의 차디찬 대리석바닥에 퍼터버리고 앉아 뱀 나와라 곰 나와라 하고 발버둥질을 치며 엄마를 가지 말라고 생사결단을 하다가 아버지의 거울진 손에 질질 끌려 밖으로 나와서였다. 아빠는 택시를 부르느라고 허둥거리고있었고 고모는 그때 까지도 두발을 동동 구르는 응이를 어찌할지 몰라 “그만해라, 그만해라-”를 런발하고있었다. 그때 무서운 굉음이 울려왔다. 따라서 고모가 소리쳤다.

“응이야, 봐라. 네가 이렇게 울어대니 엄마가 끝내 하늘로 오르는게 아니냐? 봐라, 저 봐! 엄마가 하늘로 오른다.”

고모의 잔사설에 놀라 응이는 주먹으로 눈물을 닦으며 머리를 쳐들어 소리나는쪽을 바라보았다. 하늘이 높고 푸르다고 생각되었다. 높고 푸른 하늘로 은색의 비행기가 앞을 가르며 치솟고있었다. 비행기의 옆구리에 붙은 뭐라고 씌여진 빨간색 타원형포스터가 한눈에 안겨들었다. 웬 일인지 비행기의 거대한 몸뚱이보다도



타원형의 그 빨간 포스터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고무풍선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게, 저게 터지면 어떡해? 고모...”

응이가 울음을 그치고 멀어져가는 빨간 포스터를 손가락질하며 소리쳤다.

“애는, 불길하게 웬 소리냐? 비행기가 왜 터져?”

고모가 못마땅하다는듯이 응이를 찌려보며 소리쳤다. 하지만 응이는 응이대로 하늘 어디에선가 그 빨간것이 “팡!” 하고 터져버릴것만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왔다.

그로부터 응이는 잠 못 이루는 밤이면 가끔 그 빨간것을 떠올렸고 그러는 밤이면 또 하늘로 떠다니는 그 빨간것을 꿈에 보곤 했었다. 꿈에 그 빨간것은 언제나 하늘 어디에선가 “팡!” 하고 터져버렸고 응이는 그 소리에 놀라 잠을 깨곤 했다. 그때마다 응이는 외롭고 무서워서 아빠의 겨드랑이에 머리를 들이밀곤 했다.

“자야지? 램 또 학교에 가야 하니까.”

응이를 어르는 아빠의 대사는 목수라는 변하지 않는 아빠의 직업만치나 변함이 없었다. 터져버리는 빨간것에 놀라 잠을 설치고난후 외로움에 떨고 무서움에 떨며 긴가민가 풋잠이 들면 응이는 또 호랑이에게 쫓기우고 사자에게 먹히우며 힘든 밤을 치러야 했다. 그러다가 일어나면 아빠는 아빠대로 부엌에서 아침준비를 하고계셨다.